



08-02 (통권 180호)  
2008.01.11

# CHAIRPERSON NOTE

## 경제 이슈

- 미국 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
- 3/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큰 폭 상승

## 경영 노트

- 창조적 경영자의 조건

## 사회 트렌드

- 미래의 IT 빅 이슈, 다섯 가지

## 저널 브리프

- 중국, 2008년 두 자릿수 성장 지속

## 洗心錄

- 21세기 인재상, 'T자형 인재'

## □ 미국 프라임 모기지 부실 우려

- 최근 프라임 모기지(우량담보대출)의 연체율이 상승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부실이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프라임 모기지 연체율은 지난 2004년 2.2%를 나타낸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작년 3/4분기(기말 기준)에는 3.1%를 기록하였음
  - 서브프라임 주택압류율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프라임 주택 압류율도 작년 1/4분기 0.5%에서 3/4분기에는 0.8%로 증가하는 등 프라임 모기지 부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각에서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 조치에 더하여 감세 등 획기적인 재정정책까지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 3/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 큰 폭 상승

- 산업자원부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하면 작년 3/4분기 제조업 노동생산성이 전년동기 대비 14.8% 증가하여 제조업 분야의 노동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부문별로 살펴보면 IT(25.3%)/non-IT(7.3%), 대기업(14.9%)/중소기업(5.9%), 중화학공업(15.4%)/경공업(6.6%) 등으로 나타나 부문별 노동생산성 격차가 전년동기에 비해 확대되었음
  - 업종별로는 전자부품·영상·음향·통신장비(26.0%), 전기기계·변환장치(16.5%) 등 제조업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이 큰 폭의 신장세를 나타낸 반면 기타 운송장비(-2.8%)는 부진을 면치 못하였음
  
- 한편 시간당 명목임금 상승률(15.5%)이 노동생산성 증가율(14.8%)을 소폭 상회한데 기인하여 제조업 단위노동비용(시간당 명목임금/노동생산성)은 전년동기 대비 0.6% 증가하였음

□ 창조적 경영자의 조건

- (개요) 창조적 경영자가 되기 위한 5대 핵심 요건으로 개념적 능력, 창의적 능력, 인간적 능력, 기술적 능력, 리더십을 제시할 수 있음
  - 창조적 경영자가 곧 존경받는 경영자이며, 창조적 경영자가 되고자 한다면 5개 범주, 10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함
- (10가지 조건) 10가지 조건은 경영철학, 결단력, 윤리의식, 미래예측력, 문제해결력, 커뮤니케이션, PI, 조직관리, 모티베이션, 그리고 코칭임

<창조적 경영자의 조건>

능력	구분	내용
개념적 능력	경영철학	경영자가 경영을 보는 창으로 인간관, 역사관, 세계관으로 나타남
	결단력	경영자의 가장 큰 권한이자 미션. 이성과 직관의 조화가 생명
	윤리의식	추상적 구호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적 나침반을 제시해야 함
창의적 능력	미래예측력	입체적 사고를 통한 미래에 대한 예측이 경쟁력의 핵심
	문제해결력	경영은 문제해결의 연속. 정보력, 다차원 사고, 실행력이 관건
인간적 능력	커뮤니케이션	수직적 소통과 수평적 소통, 포용과 원칙이 조화되어야 함
	PI	경영자의 이미지가 곧 기업의 가치로서, 세련된 CEO PI 가 필요
기술적 능력	조직관리	창의력과 자발성을 통해 생산성 향상 달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리더십	모티베이션	CEO는 직원들이 스스로 동기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촉매
	코칭	구성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세분화된 코칭 능력이 관건

- (시사점) 경영자들이 시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고, 사회와 구성원들로부터 존경받기 위해서는 창조성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함
  - 스티브 잡스 애플 CEO,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등이 성공적인 경영자의 아이콘으로 부상한 것은 창조성 때문임
  - 최근 찬사를 받으며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부상한 두바이는 리더의 상상력과 도전정신 및 실행력이 얼마나 훌륭한 창조를 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사례

□ 미래의 IT 빅 이슈, 다섯 가지\*

-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올해 국제 가전전시회(CES 2008)는 IT산업의 미래와 인간 삶의 변화를 조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었음
  - 빌 게이츠(MS 회장), 폴 오텔리니(인텔 사장) 등 글로벌 IT 거장들의 발언에서 나타난 미래의 IT 이슈는 다섯 가지로 압축됨
- (①콘텐츠) 얼마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가가 제품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것임
  - 日 마쓰시타전기는 유튜브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TV를 세계 최초로 선보였고, 소니는 미 포털사이트 AOL 및 소니의 영화, 음악
- (② 터치) 미래의 전자제품에는 '터치'로 대표되는 인간 친화적 기술이 구현될 것임
  - 게이츠 회장은 "앞으로도 사람과 기계가 말과 몸짓을 통해 좀 더 직접적으로 소통하게 될 것"
- (③ 울트라모바일) '주머니 속의 인터넷' 처럼 무선인터넷 기술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대를 열고 있음
  - 울트라모바일PC(UMPC)와 같은 모바일인터넷장비(MID)는 미래의 핵심적인 제품군이 될 것임
- (④ 저전력) 충전하지 않은 상태도 돌아다녀도 장시간 제품을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의 소모 전력을 낮추는 저전력 기술이 울트라모바일 제품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로 꼽힘
  - 인텔은 이번 전시회에서 기존 제품보다 크기와 소모 전력을 각각 1/5, 1/10로 줄인 모바일 프로세서를 선보임
- (⑤ 자동차) CES 2008에서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융합한 '카 인포테인먼트' 장비가 대거 소개됨
  - 왜거너 GM 회장은 10년 안에 무인자동차가 등장할 것이라며 자동차가 하나의 거대한 전자장비가 되는 시대를 예견함

\* 이 글은 『동아일보』 (2008.01.11)에 실린 글을 요약, 재구성한 것임.

□ 중국, 2008년 두 자릿수 성장 지속\*

- 중국 상하이증권보와 국가정보센터가 공동으로 발표한 ‘2008년 중국 경제 10대 예측’ 보고서는 GDP, 소비자 물가 등 10개 부문에 대한 전망과 함께 2008년에도 10.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내다봄
  - 2007년 중국 경제가 11.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2008년에는 중국 정부의 거시 정책 조정 효과가 올 들어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
- 중국 경제를 삼두마차인 투자, 수출, 소비의 성장세가 모두 다소 둔화될 것이며, 중국정부의 재정 지출도 감소되는 등 중국 경제가 안정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소비자 물가 상승률 약간 둔화) 2007년에 4.7%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비자 물가가 2008년에는 4.5%로 약간 둔화될 전망
  -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고성장 지속) 2007년 25.5%에서 2008년 23.5%로 약간 둔화될 전망이나, 여전히 20%대 이상 고성장할 것으로 보임
  - (소매 매출 증가율 소폭 하락) 중국 내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소매 매출 증가율은 2007년 16.6%에서 2008년 15.9%로 소폭 하락할 것임
  - (공업 생산액 증가율 둔화) 2008년에는 2007년 18.2%에서 1.7%p 하락한 16.5% 수준에 그칠 전망
  - (재정 지출 감소)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 정책에서 벗어남으로써 장기 건설 국채와 재정 적자 규모를 더욱 축소될 것으로 예상
  - (유동성 과잉 축소) 총통화 증가율이 2007년 18.3%에서 2008년 17%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전체 유동성 과잉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
- (전망) 전체적으로는 중국 경제가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 10.8%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중국 내수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에게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이 글은 『한경비즈니스』 (2008.01.1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 재구성한 것임.

## □ 21세기 인재상 : ‘T자형 인재’

시대 변천에 따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상도 변하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업종과 직종에 따라 필요로 하는 인재가 확연히 구분될 수 있었다. 제조업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공이 필요했고, 유통업에서는 유능한 판매원이 환영받았다. 즉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중시되었으며 기업도 인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인사관리의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산업간, 기술간 융합이 가속화되고 변화와 경쟁이 심한 오늘날과 같은 지식경제사회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방면의 폭넓은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른바 ‘T자형 인재’가 환영받고 있는 것이다.

T자형 인재는 전문성이 있으면서도 경영 전반에 폭넓은 지식을 함께 갖춘 지식인을 의미한다. 세로의 ‘|’는 전문가로서의 깊이를, 가로의 ‘—’는 다방면에 걸쳐 두루두루 아는 것을 나타낸다. T자형 인재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곳은 도요타로, 회사명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도요타의 인재상을 T자형 인재로 정의한 데서 비롯된다. 글로벌 기업인 GE 역시 T자형 인재를 중시하고 있으며, 삼성도 T자형 인재를 핵심 인재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해외에서는 다시 T자형 인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작년 중국의 17차 전국대표대회에서 발표된 중국공산당 정치국 위원의 9명 중 7명이 이공계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고, 또한 미국 최고경영자의 50%,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의 주요 상장기업 사장의 55%가 이공계 출신이라는 통계도 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방면의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가 오늘날의 핵심 인재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다. 하지만 단지 전문성을 가지고 폭넓게 안다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영역의 지식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상상력으로 발현이 되고 실행력으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다. 조직 구성원은 자기 자신이 T자형 인재로서 필요한 자질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돌이켜 보고, 기업은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T자형 인재 육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배운다는 것은 물살을 거슬러 노를 젓는 것과 같다.  
중지하면 되로 밀려난다.”**

벤저민 브리튼 (1913~1976) : 영국의 작곡가